

Style 조선일보

FEBRUARY 2020
vol.200

©2020 T&CO.

Make Hearts Fly

영원한 설레임,
티파니 다이아몬드.



TIFFANY & Co.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DAY-DATE

1956년에 출시된 이후 수많은 리더들과 저명인사들이 선택한 데이-데이트와
고유의 요일 표시창은 변함없는 품격과 성취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롤렉스의 역사입니다.

#Perpetual #변함없는탁월함



롤렉스 공식 판매점

서울 • 롯데 잠실 1F(나우워치) 02-2143-1700~2 • 롯데 소공 에비뉴엘 2F(크로노다임) 02-2118-6063 • 신세계 명동 본관 B1F(그리니치) 02-310-5366
• 신세계 영등포 1F(카이로스) 02-2639-1960 • 현대 압구정 2F(우노와치) 02-545-4855 • 현대 무역센터 2F(현대시계) 02-567-8195
부산 • 롯데 서면 1F(홍보시계) 051-808-6500 • 신세계 센텀시티 1F(명보사) 051-745-2246
대구 • 신세계 대구 1F(명보시계) 053-661-1800 광주 • 신세계 2F(세종21) 062-360-1340 대전 • 갤러리아 타임월드 1F(동화시계) 042-720-6116
롤렉스 공식 서비스센터 • 서울 롤렉스코리아(역삼역 GFC빌딩 4F, 02-2112-1251) •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1F(051-745-1277) • 전국 공식 판매점

OYSTER PERPETUAL DAY-DATE 40



40



14

Style 조선일보
FEBRUARY 2020
vol.200

TIFFANY & Co.

1896년 처음 선보인 고유의 티파니 세팅으로 오늘날 채팅 링의 대명사가 된 티파니 다이아몬드 링. 최초로 6개의 프롬이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리도록 고안해,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광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547-9488



10

- 14 **현대미술은 타이베이 풍경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을까?** 타이베이는 어리모로 풍성한 고유의 문화적 매력을 지닌 대다 이렇인도 편안함을 느낄 만한 개방성도 겸비한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런 면면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는데, 이제 '아트 피플'의 일정표에는 1월부터 타이베이가 '후보 목록에 올라가 있을' 성싶다. 지난해 출발한 현대미술 장터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아트 페어를 계기로 이 도시의 문화 예술 생태계가 연초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 16 **THE PROMISE**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순간에 의미를 더해줄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 24 **THE TIME OF OUR LIFE** 영원한 시간을 약속할 수 있는 가치 높은 페어 워치를 찾고 있다면, 세련된 품격, 정교한 기능, 감도 높은 디자인을 겸비한 오메가의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이 완벽한 선택이다. 현대적인 감각을 입고 진화한 다채로운 버전의 컨스텔레이션 워치는 예비 신랑과 신부의 감각적인 취향을 두루 만족시킬 것이다.
- 26 **GROOMING IT LIST** 예비 신랑의 완벽한 룩을 완성하는 데 일조할 감각적인 그루밍 아이템.
- 27 **TURN ON THE LIGHT**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한 화이트닝 솔루션, 휘도 불량 르 공성트레.
- 28 **BORN TO BE LOVED**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는 그라운드의 빛나는 순간을 기록한다. 심플하고 격조 있는 스타일로 더욱 주목받는 웨딩 마차.
- 36 **INTO THE WAVES** 스위스 럭셔리 스키케어 브랜드 라프래리가 끊임 없이 탐구해온 빛이 자른해 12월, 마이애미 비치에서 색다른 존재감으로 눈길을 끌었다. 마이애미 해변에 설치된 빛의 기둥, 그리고 빛의 파도(Wave), 과학을 예술로 표현하는 라프래리의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과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 38 **THE SHAPE OF LIGHT** 빛으로 완성되는 완벽한 스키케어. 빛을 향한 라프래리의 끊임없는 연구는 피부 과학을 더욱 진화시켜 아름다움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오는 2월 17일, 놀라운 기술력으로 선보일 새로운 아이 케어 솔루션,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너어의 모든 것.
- 40 **SNOWY BLISS** 반세기도 훨씬 더 전인 1953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에 한정된 탄생 스토리를 지닌 위스키다운 로얄 살루트의 존재감이다. 오랜 위상을 지켜온 배경에는 '발렌딩의 예술'이라는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흥미로운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균형의 미학이 버티고 있다. 이번에는 마차 '눈의 여왕을 위한 선물처럼' 새하얀 자태가 돋보이는 '스노우 플로 에디션'이 참신한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그 매력적인 모습을 전격적으로 선보인 무대는 미국 플로리다주 이스펜에서 펼쳐진 스노우 플로 대회. 눈부신 설정 속에 역동성이 넘쳐흐르는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
- 41 **JOYFUL LIVING** 행복한 기억에서 출발한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2020 S/S 시즌 컬렉션. 실랑이는 해변가의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듯한 이번 컬렉션은 보는 이들을 로맨틱한 여정으로 이끈다.
- 42 **EDITOR'S PICK** 대체는 내추럴 뷰티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뷰티 신제품들.

Style 조선일보

Issue.200 February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BE MY
VALENTINE**

소중한 마음을 전해줄
사랑스러운 무드의
펜던트 네크리스 6.

프로그라피 비주얼 | 이스타트트 조소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네 가지 골드 소재를 믹스한 리본 펜던트가 사랑스러운 우리라 컬렉션 네크리스 2백30만원대 **타사키**, 핑크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로 화사함을 더한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4백만원대 **콜가리**, 감각적인 LOVE 레터링 펜던트가 돋보이는 테파니 팔로로 그레피티 러브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타사키**, 여러 컬러의 하트 모티프로 이뤄진 일체적인 디자인의 벨에포크 하트 네크리스 3백50만원대 **다미아니**, 아티스트 트레이시 애인과 합업한 '아이 프로미스 투 러브 유' 컬렉션의 내온 하트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스티븐 헬스터**, 아이코닉한 러브 브레 아슬에서 영감을 얻어 스크루 문양과 알파벳 L, O, V, T를 인그레프팅한 옐로 골드 러브 네크리스 2백70만원대 **캐럴리데**, 에디터 **아헤미**

**Fashion
TWINKLE TOE**

신부의 발끝을
아름답게 빛내줄 웨딩 슈즈.

(왼쪽부터) 레이스와 깃털, 크리스탈 장식이 화려한 오데트 샌들 3백80만원 **지미슈**, 주얼 비를 장식이 상징적인 한가시 새틴 펌프스 1백80만원대 **마블로 블라너**, 고혹적인 새틴 소재와 플라워 스트라스 비블이 조화로운 썬 66 펌프스 2백63만원 **로저 비비에**, 크리스탈 포인트가 돋보이는 블랙 스웨이드 테자 펌프스 가격 미정 **지미슈**, 매끈한 송아지 가죽으로 완성한 핑크 하이힐 플랫폼 샌들 가격 미정 **구찌**, 에디터 **아유이**



프로그라피 비주얼 | 이스타트트 조소비



프로그라피 비주얼

**Beauty
FACE OFF**

겨울 동안 우물쭈물 거칠고 칙칙했던 피부, 이제는 각질과 노폐물을 대청소할 시간이다.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렌시스 젤** 필링 **스쿠아시** **아헤미** 크림 미세 알갱이가 없는 크림 텍스처가 피부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준다. 극강의 각질제거에 사용 가능한 베스트셀러(50ml 4만2천원), **시슬리 워터 블링 버프 앤드 워시** **헤이셀** 젤 표면에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내 피부를 윤기 있게 가꿔주고, 톤을 밝고 투명하게 만들어준다(100ml 13만5천원), **겔링 고미즈 두브네 스킨 리베이션 필링 에디션** 리퀴드 제형의 각질 제거 성분인 피부에 자극 없이 노폐물과 각질을 알갱이 제거해 다음 단계 스킨케어에 위한 완벽한 상태로 준비해준다(75ml 9만2천원), **링뎀 로즈 슈가 스크럽** 불필요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를 준비시키는 것은 물론, 사용 후에도 건조하지 않아 인기가 높다(100ml 4만8천원), **리베이션 블링 버프 3 미닛 필** 착촉하고 겔이 고르지 않은 피부에 부드럽고 필링으로 즉각적인 모공 수축 효과와 광채를 부여한다. 또 주름을 감소시켜 탄력을 부여하고, 피부 조직을 개선해준다(40ml 3만1천원), **시슬리 수분리미지 비닐라 씨드 페이스 스크럽** 비닐라 씨드와 호환 씨드를 함유한 블랙 컬러 젤 스크럽, 각질을 제거하고 노폐물도 없애줘 부드럽고 균일한 피부를 완성해준다(50g 9만8천원), **데코르테 AQMW 크리스탈 리퀴드** 각질을 물 분 사안 후 남아 있는 잔여물까지 뒤이어 촉촉하고 윤기 있는 투명 피부를 가꿔준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용 용에도 좋은 순한 각질 제거제(150ml 9만2천원), **블리 1803 미인 스프레이** 그리스 바다의 해안에서 채취한 천연 해면으로, 흡수력이 뛰어나고 유연하다. 클렌징 시 물리학적 부드럽게 얼굴을 닦아내면 피부 잔여물이 깔끔하게 제거된다(1만2천원), 에디터 **장리윤**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Drinks
심신의 찬기를 보듬어주는 스피릿(spirits)의 향연**

술은 계절을 반드시 타지는 않지만, 찬기가 으슬으슬 심신을 옥죄는 겨울에는 아무래도 '독한' 중독이 눈에 들어오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겨울에 더 매력적인 것이 증류주다. 독하지 않은 여러 방식으 가 별게 마실 수 있다고 해도 말이다. 최소 21년 이상 숙성된 완연한 블렌딩한 스카치위스키 로얄 살루트 7(700ml 기준 33만원)을 선보인 데 이어 아주 희귀한 하이엔드 위스키를 아심 차게 내놓았다. 명성 높은 스페인 페드로 헤메네즈 세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제품으로, 정열의 나미에 잘 어울리는 색상인 레드 플라그에 담긴 '로얄 살루트 29년 페드로 헤메네즈 세리 캐스크 파니시 에디션, 최소 52년 이상 숙성된 완연한 '슈퍼 럭셔리' 위스키인 '로얄 살루트 52년 싱글 캐스트 파니시 에디션(국내 5명 한정), 각각 700ml 기준으로 1백20만원대와 33만5백원이다. 먼저 단독 제품으로는 첫 25년산 제품인 '로얄 살루트 25년 트레저드 블렌딩도 나와 있다(2백85달러),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스타 알브레트와의 패키징 디자인 협업으로 탄생한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도 눈길을 끈다. 싱글 몰트위스키 애호가들에게도 새 소식이 있다. 글렌모렌지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10년산 싱글 몰트위스키 '글렌모렌지 오리지널과 텀러 형태의 글라스 2개로 구성된 '2020 한정판 에디션'을 주목해야겠다. 부피한 300ml 용량의 텀러는 글렌모렌지 오리지널 캐드블 하이볼 등 다양한 칵테일을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글렌피터는 도전 정신을 가미한 '익스페리멘탈 시리즈'로 주상 공략에 나섰다.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인 'IPA 익스페리멘트'는 업계 최초로 영국식 맥주의 한 종류인 인디아 페일 에일(IPA) 오크 통에서 숙성된 싱글 몰트위스키이며, 1명의 몰트 마스터가 완연과 오크 통을 선택하는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20명의 위스키 전문가가 참여한 '프로젝트 XX'의 두 번째 제품. 익스페리멘탈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으로는 스위트 럼 오크 통에서 파니싱 과정을 거쳐 '스모카한' 감성을 품은 싱글 몰트위스키 '파이어 앤 케인'이 있다. 이 밖에 발렌타인 브랜드 최초의 12년산 싱글 몰트위스키인 '글렌버거 12년, 컬러 연구소 패턴과 협업해 한정판으로 내놓은 '맥칼란 에디션 남버거'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 에디터 **고성현**



**Exhibition
김근태 (숨, 곁)展**

절제와 인내의 시간을 '붓질'이라는 행위로 모두 밀어내며 자만의 흑백 세계로 승화시키는 김근태 작가의 전사가 찾아왔다. 2017년 이래 3년 만에 열리는 김근태 작가의 개인전 (숨, 곁)展이 2020 아트 조션 온 스페이지의 첫 번째 기획전으로 조선일보미술관에서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단순한 듯 강렬한 '블랙' 작업을 포함해 총 44점을 선보인다. '숨은 가장 의도적'이면서도 의도적이지 않은 생명의 행위로 이를 더할 때 붓질이 일어난다. 들숨과 날숨을 칠고 또 뱉어내면서 수차례 붓질을 하는 작업 과정 속에서 작가는 수많은 '결' 위에 드러난 흥집과 찌김을 그대로 실렸다고 한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네 삶의 모습과 닮아있다. 미술 저술가 케이티 림은 그의 작품 세계를 가리켜 '개인적인 공방'이며 연구자 깨달음'이라며 '명확해 보이는 언어로 총총히 뚫듯한 체계 너머에 존재하는, 의미의 확장에 양위'지 않는, 어떤 인간 경험'이라고 평했다.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Dazzling Rendez-Vous Moon.
Manufacture movement 925B/1.

에저 르쿨트르 부티크

갤러리아 EAST - 롯데 에비뉴엘 - 롯데 월드타워 - 현대 본점 - 현대 무역센터 - 현대 판교 - 신세계 대구



1 스웬을 정교하게 수놓은 웨딩드레스 1천만원대 **인빌드웨어 by 아틀리에 쿠**, 2 크리 스틸로 장식한 아사테이트 선글라스 50만원대 **마우미우 by 루스타카 코리아**, 3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만개한 달리아 꽃을 표현한 달리아 펜던트 2백85만원, 화이트 골드 채인 네크리스 21만원 모두 **골든듀**, 4 18K 옐로 골드와 핑키 옐로 모파이트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옐로 버진 트루 링, 클래식한 플라타넘 링에 티파니 트루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트루 링 모두 가격 미정 **타파니**, 5 특유의 마테리얼 기법을 적용한 나파 가죽 미니 백, 17.5 X 12cm, 1백72만원 **마우미우**, 6 메르세데스 메탈릭 레더 스트랩을 따라 화려한 크리스탈을 배치한 신들 힐 1백56만원 **아쿠아주라 by 한스타일닷컴**, 7 오발형 다이얼과 빛나는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어우러진 론진 심포네트 워치 2백10만원대 **론진**, 8 알라카이트를 세팅한 벨머리 클로저 장식이 특장인 세르펜티 포에버 백, 16 X 8.5cm, 3백만원대 **불가리**, 9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한 앙증맞은 하트 모티브 락 앤 러브 마카롱 차임 52만15천원 **모아나**, 10 엄선한 최상급 진주를 세팅한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타사키 스테펠라 티아라 가격 미정 **타사키**, 11 메종의 아이코닉한 레드 박스를 모티브로 한 카프 레더 갈판드 드 까르띠에 백 3백30만원대 **까르띠에**, 12 바카라의 상징적인 아코어 이브 플루트 세트 2잔 구성 68만원 **바카라**, 13 메릴과 글라스를 조합한 멋스러운 키링 가격 미정 **사넬**, 14 클러터 소재로 화려함을 더한 신 플라워 스트라스 힐 2백67만원 **로저 비비에**, 15 투베르조와 상그러운 오렌지 플라센, 파슬리 향이 어우러진 라 팜프 프라다 인텐스 EDP, 100ml, 22만원 **프라다 by 사이오인타리샤넬**.

골든듀 1588-6576 루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타파니 02-547-9488 마우미우 02-3218-5331 론진 02-310-1597 한스타일닷컴 02-6905-3649 불가리 02-2056-0170 아틀리에 쿠 02-517-3889 타사키 02-3461-5558 모아나 02-596-9620 까르띠에 1566-7277 바카라 02-310-9306 사넬 080-200-270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사이오인타리샤넬 080-363-5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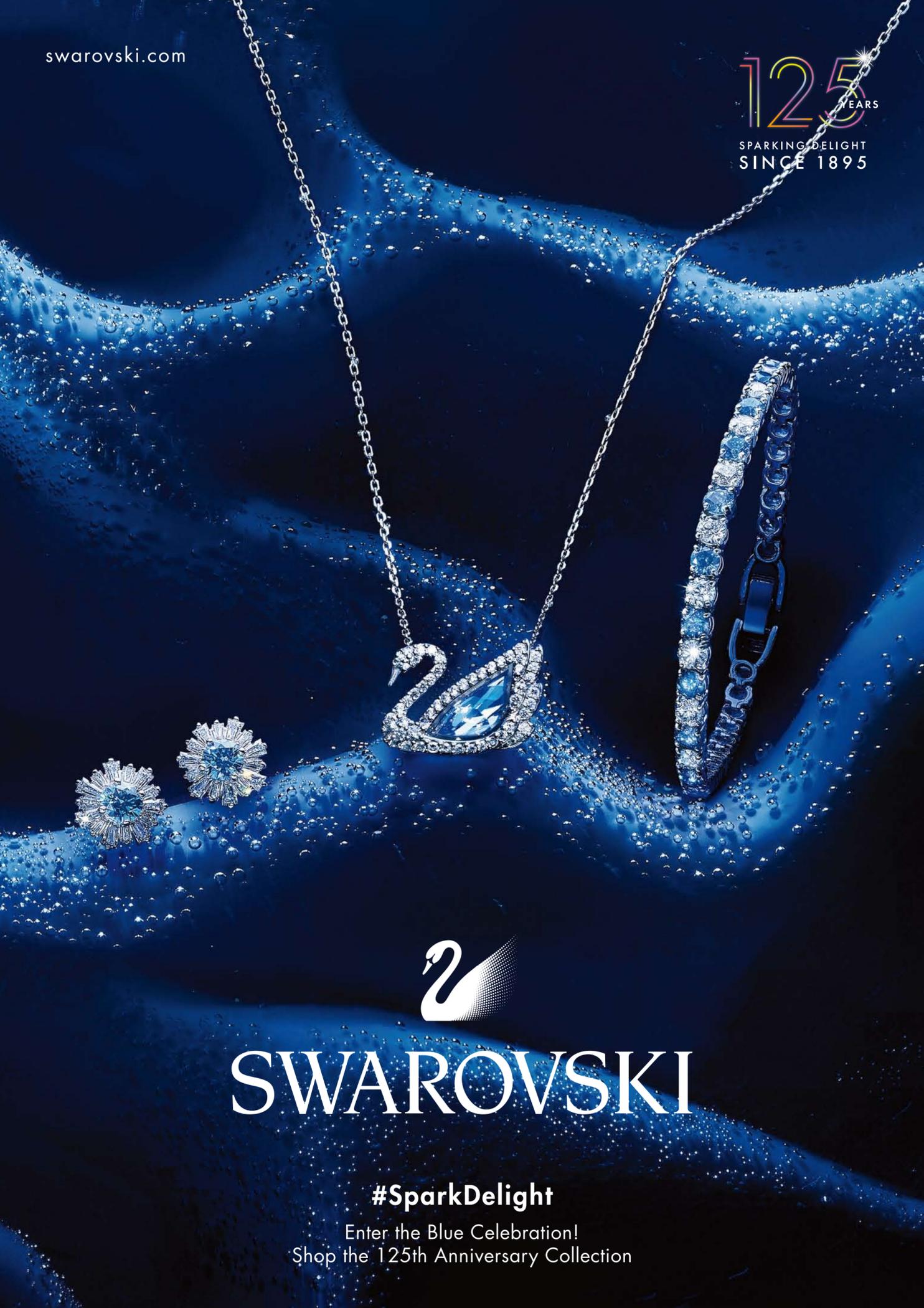
스타일링: 유영, 양영, 이정은 | 이미지: 에디터 | 이미지

for her
Selection

꽃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예비 신부를 위한 브라이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swarovski.com

125 YEARS
SPARKING DELIGHT
SINCE 1895



SWAROVSKI

#SparkDelight
Enter the Blue Celebration!
Shop the 125th Anniversary Collection



1 클래식한 솔링라 텍스도 1 백445천원, 코트 화이트 셔츠 23만원, 실크 보타이 13만9천원 모두 **브룩스 브라더스**, 2 깔끔한 실크 보타이 30만원 **브리오니**, 3 크리스탈 장식과 블루 코드 스트랩이 어우러진 아이 브레이슬릿 8만4천원 **스외로브스키**, 4 견고한 송아지가죽 폰 케이스 가격 미정 **살바토레 페라가모**, 5 지름 40mm 다이얼에 스텝 세컨즈 기능을 갖춘 스몰 세컨즈와 날짜창, 문페이즈 인디케이터를 장착한 1815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5천원대 **랑에운트차네**, 6 인트레치아트 7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카프 레디 브리프케이스 4백79만5천원 **보테가 베네타**, 7 고급스러운 약자가죽 벨트 1백88만원 **롤렉스 비아 델라 스피가**, 8 미네랄 에코드 향을 시작으로 차분한 우디와 머스크 향이 이어지는 쥬비비투스 X 닉 조나스 실버 EDT, 125ml, 11만9천원 **존바버토스 by 사이오인타네셔널**, 9 현무암과 18K 골드로 제작한 블랙 베럴 오마주 투 하드리야누스 4810 만년필 M 3백77만원 **몽블랑**, 10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은 캔들 24만1천원 **에르메스**, 11 스크래치 방지와 방수 기능을 겸비한 타이가 가죽 알티를 월트 80만원대 **루이 비통**, 12 배너가 가죽 소재 대비 슈즈 2백75만원 **벨루타**, 13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인타샤셀 캐리온 캐리어, 35.5 X 56cm, 1백302만원 **루미**, 14 인화우스 3235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트 자스 트 36 1천7백2만원 **롤렉스**, 15 출시 1백67주년을 기념하는 크루그 그랑 퀴베 167 에디션 30만원대 **크루그**.

스외로브스키 1661-9060 브리오니 02-6905-3760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랑에운트차네 02-6905-3326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롤렉스 비아 델라 스피가 02-2230-1225 사이오인타네셔널 080-363-5454 몽블랑 1670-4810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 02-542-6622 벨루타 02-547-1895 루미 02-539-8160 롤렉스 02-2112-1251 크루그 02-2188-5100 브룩스 브라더스 02-2052-8822

이러한 데일리 에센셜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for him Selection

멋스럽고 클래식한 취향을 지닌 예비 신랑을 위한 에센셜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JOY GRYSON



Taipei Dangdai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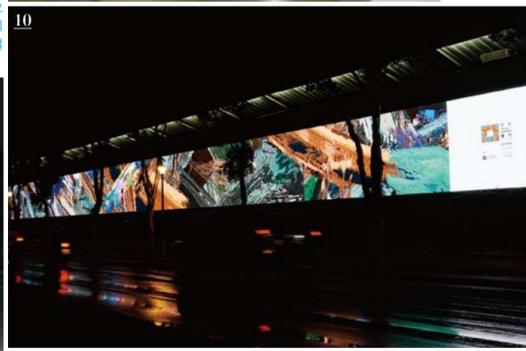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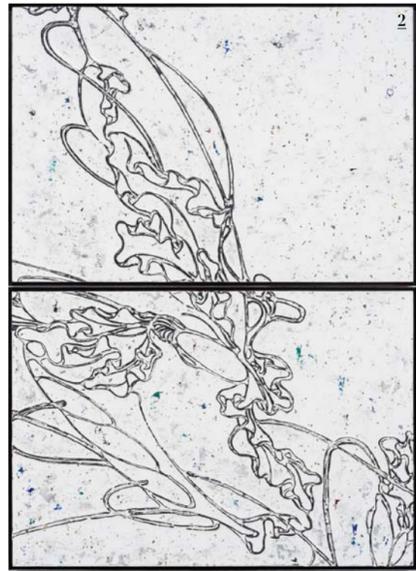
현대미술은 타이베이의 풍경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을까?

타이베이는 여러모로 풍성한 고유의 문화적 매력을 지닌 메다 이방인도 편안함을 느낄 만한 개방성도 겸비한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런 면면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는데, 이제 '아트 피프'의 일정표에는 1월부터 타이베이가 '후보 목록에 올라가 있을 성싶다. 지난해 출발한 현대미술 장터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아트 페어를 계기로 이 도시의 문화 예술 생태계가 연초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기 때문. 아직 확언하기엔 이르지만 '잘 만든 행사 하나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띄운다'고 할 법하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트 페어의 내실 있는 콘텐츠와 더불어 점차 풍성해져가는 각종 문화 예술 공간은 미식의 도시답게 맛난 먹거리, 온화한 날씨에 더해 방문객의 발걸음을 즐겁게 만든다. 그 현장을 소개한다.



지난 1월 16일 오후, 타이베이 난강 전시 센터. 올해로 2회를 맞이한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 台北當代) 아트 페어(1. 17~1. 19)의 VIP 프리뷰가 진행되는 날. 미술품을 사고파는 세련된 장터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아트 페어가 대개 그러하듯 잘 차려입은 '아트 피프'가 몇 겹씩 줄을 선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자못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지난해 첫 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양호한 출발'이라는 호평이 자자했기에 살짝 궁금덕한 터였다. 사실 커다란 사각형 공간에 갤러리들이 부스를 줄지어 차리는 아트 페어의 풍경이란 게, 자주 다니다 보면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기대를 품게 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더구나 타이베이 당다이는 참가 갤러리가 99개로, 규모 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아 두어 시간이면 너끈히 '섬뜩하리라' 생각했다. 유럽의 대형 아트 페어나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 바젤 홍콩처럼 2백 개가 훌쩍 넘는 부스를 정성없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그런데 예상외로 '발품을 파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양보다 질이라고 했던가. 세 자리 숫자가 아니어도 콘텐츠의 '영양가가 꽤 높은지라 몇 시간에 걸쳐 한 바퀴를 돌아도 충분치 않았다. 그래도 한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에 대형 아트 페어에 비해 피로도는 덜한 편이었다. 먹을 것이 많은 잔치라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뭐가 됐든 대부분 작고 알찬 공간을 선호하는 편이라 부디 이 크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들었다.

‘작지만 강함’ 아트 페어, 타이베이 당다이의 매력
다행히 이 아트 페어를 만든 이들도 일단은 비슷한 생각을



1 지난 1월 17일부터 3일간 타이베이 난강 전시 센터에서 열린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아트 페어. 2회를 맞은 올해 아트 페어에서는 전시장 인팍으로 다수의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장 내 설치된 아이웨이(Weiwei)의 'Law of the Journey'(2016)와 백을 장식한 'Odyssey'(2015), Chambers Fine Art 재공. Courtesy of Taipei Dangdai 2 리만 마틴(Lehmann Maupin) 갤러리에서 선보인 이블(Lea Bull)의 신작 'Perdu XXX' 시리즈(2019). 아트월에 자기를 혼란한 작품. Courtesy the artist, Lehmann Maupin, Seoul, Hong Kong and Seoul 3 베트남계 덴마크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인 보(Danh Vo) 개인전인 '열리고 있는 원상 아트 플레이스 아틀리에, Courtesy of Wising Art Place Atelier 4 안카이 만드 비과과 자연에서 비롯된 재해를 다룬 'Co/Inspiration in Catastrophes' 전시인 오노 유미코 개인전인 타이베이)의 주요 현대미술관 MOCA 타이베이에서 열리고 있다. Photo by SY Ko 5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갤러리 가교사인(Gagosian)에 전시된 무라카미 다카시와 조나스 우드 작품. 6 올라푸르 알리아슨, 옐리베스 페이틴, 안드레아스 에릭슨 등의 작품들을 선보인 베를린의 노이게림슈나이더(Neugerriemschneider) 갤러리. Photo by SY Ko 7 영국의 현대미술상인 타나스를 공동 수상한 젊은 아티스트 오스카 무리조(Oscar Murillo)의 작품 'Untitled'(2019). 페어 첫날 38만달러에 팔렸다. © Oscar Murillo Courtesy the artist and David Zwirner 8 원상아트 플레이스 아틀리에를 방문한 오스카 무리조. Photo by SY Ko 9 영 갤러리즈 부문에 선보인 더블 스퀘어 갤러리(Double Square Gallery) 부스. Photo by SY Ko 10 타이베이 사해 90m 길이의 디지털 스크린에 입힌 김태윤(Taeyoon Kim)의 작품 'Drifters v1.04'. Courtesy of the artist and Whistle, Photo by Dong Gallery 11 한 작가에게 집중하는 솔로스 부문에 바스타인(BASTIAN) 갤러리가 선보인 덴 플라빈(Dan Flavin)의 1992년 작품 'Untitled (for S.D.)'. Ultraviolet and yellow fluorescent light, 243.8x60.9x20.3cm. Edition: 5 Courtesy BA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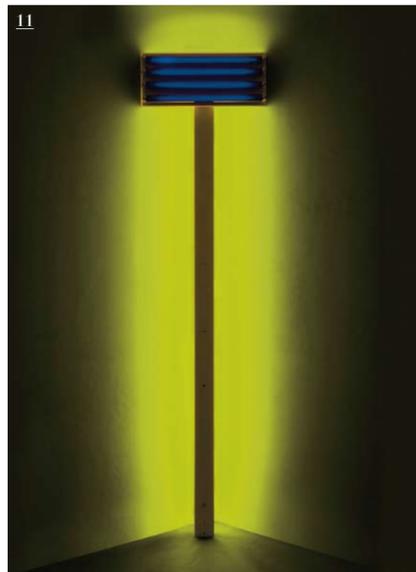


했다. 여기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홍콩 시장에서 인맥과 노하우를 쌓아온 매그너스 렌프루와 더불어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는 공동 디렉터로 선임된 로빈 페컴(Robin Peckham)의 조화로운 역할이 컸다. 영국 출신이지만 일찍이 아시아로 넘어온 로빈 페컴은 기자회견에서 말을 꺼낸 순간 현지인 못지않게 유창한 중국어(만다린어) 실력으로 좌중을 놀라게 했다. 그는 미술 전문지 편집장, 독립 큐레이터 등의 경력으로 다져진 30대의 젊은 인재다.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2인조 디렉터는 올해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꾸리기 위해 크게 세 부문(메인)에 해당하는 '갤러리즈(Galleries)' 부문, 1명의 작가에게 집중하는 '솔로스(Solos)' 부문,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유망한 신진 갤러리를 소개하는 '영 갤러리즈(Young Galleries)' 부문으

로 구성된 부스 공간만이 아니라 전시장 곳곳과 도시의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을 장식한 대만 아티스트 마이클 린의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해 도시 여기저기에서도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또 문화 예술계의 이슈를 탐색해볼 수 있는 IDEAS 포럼을 한층 심도 있게 꾸렸는데, 올해는 최근 영국의 현대미술상인 터너상을 공동 수상한 젊은 아티스트 오스카 무리조(Oscar Murillo)가 발표자로 참가하기도 했다.

도시 풍경을 다채롭게 물들이는 현대미술

마침 1여 년 전 국제갤러리(서울 소격동)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는 오스카 무리조를 만났다. 콜롬비아 출신으로 10대 초반 런던으로 이주한 뒤 아티스트로 성장한 그는 런던만이 아니라 뉴욕, 브뤼셀 등 지구촌 우수 도시를 누비면서 활동하는 코즈모폴리탄 작가. 당다이 아트 페어가 열린 첫 날 38만달러에 작품이 팔린 그는 타이베이라는 도시는 개방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사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소용돌이처럼 몰아친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 역사의 아픔을 안은 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릴 만큼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독재정치와 도시화의 그늘로 또 다른 시련을 감내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닮은 면이 많다. 그런데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사회·문화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성을 품고 있다. 사실 으리으리한 규모나 외양으로 압도하는 현대미술 공간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MOCA 타이베이같이 진중한 주제 의식을 내세우면서도 대중과 평단에서 동시에 호평을 받는, 작지만 알찬 미술관이 젊은 세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고, 최근에는 개성 있는 갤러리나 민간이 운영하는 매력적인 미술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여름 문을 연 원상아트 플레이스 아틀리에(Wising Art Place Atelier)가 좋은 예다. 깔끔하고 우아한 전시장과 함께 카페, 서점 등이 들어서 있는 비영리 문화 예술 공간으로, 현대미술 애호가 제니 여(Jenny Yeh)가 운영하는 곳. 개인전으로 더그 에이컨(Doug Aitken), 두 번째 전시로 양혜



규 개인전이 열렸고, 현재 타이베이 당다이의 개막과 맞물려 베트남계 덴마크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인 보(Danh Vo)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다(오는 4월 5일까지). 세련된 방식으로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저트 아트 뮤지엄(Jut Art Museum)도 주목할 만하다. 존 밀턴의 고전 소설 <실락원>에서 제목을 딴 기획전 <Paradise Lost>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다(오는 4월 5일까지). 현지에 기반을 둔 갤러리들의 약진도 타이베이를 위시한 대만의 아트 지형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대만을 비롯해 다양한 아시아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아트 센터(Asia Art Center), 프로젝트 풀필 아트 스페이스(Project Fulfill Art Space), 린 & 린(Lin & Lin), 이지 모던(Each Modern), 에슬리트 갤러리(ESLITE Gallery), 티나 썩 갤러리(Tina Keng Gallery) 등을 꼽을 수 있다. 혹시 타이베이 아트 투어를 시도한다면 당다이 아트 페어처럼 그리 복잡하지 않은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아트 페어의 아이콘’, 매그너스 렌프루의 미소

사실 타이베이는 글로벌 아트 페어를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도시였을지도 모르겠다. 타이베이 당다이가 열리기에 앞서 이 떠오르는 아트 페어에 대해 심층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에서 언급됐듯, 정치적인 다양성이 존재하고(정치편이 시끄럽기는 하지만) 외부인에게 열려 있는 편이고, 추세도 빠르게 움직이는 데다 내수 시장의 컬렉터층(젊은 부유층 애호가도 많은 편)이 형성되어 있는 등 주변 인프라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단지 그동안 '아트 허브'로서 화려한 조명을 받은 홍콩이나 고공 행진을 펼치며 중국 작가들의 몸값 등에 가려진 면이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 주지는 않지만, 첫해에만 2만8천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인 타이베이 당다이는 2020년에는 4만1백92명이라는 더욱 고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부스 매진'이나 주요 작가들의 빼어난 판매 실적을 발표하며 축포를 터뜨리는 갤러리로 눈에 띈다. 올해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아트 페어를 시작할 예정이며, 한국 시장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매그너스 렌프루는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아트 페어의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갤러리들의 부재가 못내 아쉬운 때가 많은 우리 아트 페어의 현주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글 고성원(타이베이 현지 기자)

Chanel Watch & Fine Jewelry

(우부터 시계 방향) 매끈한 세라믹으로 완성한 J12 워치, 깔끔한 화이트 레커 다이얼과 우아한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조화를 이룬다. 케이스 백에는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적용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6백만원대, 브랜드의 상징적인 핑팅 패턴을 모티브로 삼은 코코 크러쉬 라인 제품으로, 배지 골드 링에 1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슬림 링, 가격 미정. 클래식한 외관을 자랑하는 플래티넘 마블라베 브라이얼 라지 링 2백만원대, 골드 링으로 연출해도 좋은 코코 크러쉬 슬림 링 가격 미정, 인덱스를 생략한 자개 다이얼과 핑크 가죽 리본을 엮은 스틸 체인 브라이얼링이 특징인 프리미어 락 워치, 초장인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1천2백 개 한정으로 출시한다. 6백만원대, 기계식 셀프와인딩 메뉴백저 칼라버 12.1로 구동하는 J12 화이트 워치, 약 200m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7백만원대, 모두 **사일 워치 앤 화인 주얼리**, 문의 080-200-2700



The Promise

아름답고 소중한 서약의 순간에 의미를 더해줄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i hong*

Blancpain

(왼쪽부터) 클래식한 로마숫자 인덱스 다이얼에 컴플리트 칼린더를 더하고 6시 방향에 문페이즈를 적용한 빌라레 컴플리트 칼린더, 총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블랑팡 특유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언더 리그 코헤터로 특정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천7백61만원, 인허무스 셀프와인딩 9130L-P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빌라레 우먼 데이트 문페이즈, 지름 33mm 다이얼 6시 방향에 문페이즈를 장착했으며, 이위 앵커 인덱스에서 레드 반달 달을 통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1천2백만원대, 모두 **블랑팡**, 문의 02-3213-2261



Vacheron Constantin

(우부터) 기존 워치들과 달리 손목에 착용했을 때 시간을 대각선으로 읽는 디스플레이와 12시 방향에 장식한 오픈 센터 크라운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하스토릭 아메리칸 1921, 까다로운 재제비율인 인종을 받은 칼라버 4400으로 구동한다. 다크 브라운 악어 가죽 스트랩에 매장을 상징하는 말테 크로스 핀 버클을 장착해 품격을 수놓았다. 4천2백만원대, 가로세로 36.5mm 핑크 골드 케이스로 선보이는 여성용으로 광택 있는 레드 악어 가죽 스트랩과 조화를 이루는 하스토릭 아메리칸 1921, 총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적용한 케이스 백으로 무브먼트를 과감하게 드러냈다. 3천7백만원대, 모두 **바세톤 콘스탄틴**, 문의 02-3446-0068



Breguet

(우부터) 지름 42.3mm 케이스에 각각 시, 분, 초, 날짜를 가리키는 인디케이터와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장착한 마린 크로노그래프 5527, 치분한 골드 산버스트 슬레이트 그레이 소재를 적용한 다이얼과 견고한 티타늄 브라이얼링이 조화를 이룬다. 2천2백만원대, 은은하게 빛나는 자개 다이얼과 베젤을 따라 정교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우아함을 강조한 마린 담프 9518, 기계식 셀프와인딩 칼라버 591A로 구동하며, 3시 방향에 날짜창을 장착했다. 2천2백만원대, 모두 **브뤼게**, 문의 02-3149-9559



Jaeger LeCoultre

(왼쪽부터) 기계적 패턴을 적용한 다이얼에 낮과 밤 인디케이터를 장착했으며, 지름 34mm 핑크 골드 케이스 베젤을 따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수놓아 화려함을 배가한 링데부 나잇 & 데이 디자임, 2천만원대, 두께 1cm 이하의 초박형 시계로, 지름 39mm 다이얼에 날짜창과 문페이즈를 장식한 마스터 울트라씬 룬, 글라스 백을 통해 칼라버 925/1의 섬세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천만원대, 모두 **예거 르쿨트르**, 문의 02-6905-3998





Richard Mille

(왼쪽부터) 3분할 케이스로 혁신성이 돋보이는 RM 07-01, 스퀘어데드 무브먼트로 CRMA2 칼라바의 메카니즘을 부분적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물방울 모양 인덱스와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중앙 다이얼이 우아함을 뽐낸다. 2억원대, 축구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의 요청으로 특별 제작된 RM 11-01, 가로 세로 50 X 42.7mm 다이얼 4사와 5시 방향 사이에 있는 루시 버튼으로 작동하는 플라잉 크로노그래프와 애플워치 캘린더를 장착했다. 약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파워 리저브 시간이 조정된다. 1억원대, 모두 리처드 밀, 문의 02-512-1311



Piaget

(왼쪽부터) 오픈 링 양쪽 끝에 장식한 선명한 칼세도니 스톤과 이를 감싸는 다이아몬드 피베 세팅 타당 밴드가 매력적인 포제션 화이트 칼세도니 오픈 링 3억5000만원대, 행운을 상징하는 7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포제션 워딩 링 2억7000만원대, 순수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포제션 워딩 링 1억8000만원대, 베젤을 따라 72개의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세팅한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블루 온yx 다이얼이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알티몰리노 메테오라이트 워치, 셀프워딩 칼라바 1203P를 장착하고, 글라스 백을 통해 볼 수 있는 로터에 브랜드의 시그니처 P 문양을 새겨 상징성을 더했다. 4천5백만원대, 모두 피아제, 문의 02-540-2297



Cartier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 20세기 초 파리에서 탄생했던 대항과 긴결함의 미학을 담아낸 제품으로, 정사각형 다이얼이 특징인 산투스 뒤몽 워치, 로마자 인덱스와 약아자족 스트랩이 클래식한 매력을 뽐낸다. 블루 카보숑으로 장식한 스크 모티브의 크리요온 메종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 6백80만원대, 우아한 타원형 케이스가 매력적인 베누아 워치, 옐로 골드 케이스와 토프 약아자족 스트랩이 조화로우며, 약 30m의 생활 방수 기능을 갖는다. 1천3백만원대, 메종의 상징적인 라브 링을 모티브로 한 18K 화이트 골드 링으로, 중앙에 약 1.0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브 슬러터 링 2천7백만원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가르피에 워딩 밴드 1천3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밴드 중앙에 세팅한 핑크 골드 라브 링 4백30만원대, 밴드에 섬세하게 세팅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프롱 세팅한 시퍼 이어 프레스스 컬러 스톤이 고혹적인 슬러터 링 1895 컬러 스톤 링 가격 미정, 모두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Tasaki

(우루타) 이코아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교차하는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벨란스 크로스 다이아몬드 링 3백30만원대, 18K 옐로 골드 링크에 이코아 진주를 세팅한 파인크 링 3백만원대, 피아니스트가 새겨, 테를 연주하는 데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브리얼 라인으로, 플라티넘 링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피아노 폴 이터나티 링 3백30만원대, 고유의 사쿠라 골드 링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피아노 폴 이터나티 링 3백40만원대, 모두 타사키, 문의 02-3461-5558



Fred

(우루타) 화이트 골드 밴드 링에 14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미 피에 세팅한 포스트 듀오 링 4백만원대, 로즈 골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조화로운 포스텐 듀오 링 4백만원대, 해랑 케이펄의 트루스트 형태에서 착안한 플라티넘 포스텐 브리얼 링 1백만원대, 모두 프레드, 문의 02-514-3721



Boucheron

(우루타 시계 방향) 골드 비즈가 터키이즈를 세팅한 드롭 모티브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트루스트 체인에 라운드 원 다이아몬드를 더해 포인트를 준 새행 보행 터키이즈 엑스 스몰 핀드 1백만원대, 옐로 골드 스몰 링에 2개의 말라카이트를 세팅한 새행 보행 말라카이트 스몰 링 2백만원대, 33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 링에 행운과 힘을 상징하는 레드 컬러 세라핀을 조합한 퀴트로 레드 다이아몬드 워딩 밴드 8백만원대, 다이아몬드의 알티 커팅 면에서 영감을 얻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핑크 골드 링에 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파셋 핑크 골드 워딩 밴드 3백만원대, 모두 부셰론, 문의 02-3479-6028



IWC

(왼쪽부터) 지름 34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담긴 다이얼에 양각 새김으로 독특한 글리테링 효과를 주어 극강의 화려함을 뽐내는 포르토파노 오토매틱 34 2천4백45만원, 애플워치와 7년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자체 제작 52850 칼리버의 조합이 돋보이는 포르투기저 애플워치 캘린더 3천8백20만원, 지름 44.2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날짜, 요일, 월, 4자리 연도 표시창과 문레이즈 인디케이터를 장식한 포르투기저 파페추얼 캘린더, 글라스 백을 통해 정교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4천4백70만원,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35800을 탑재한 포르토파노 오토매틱 문레이즈 37, 문레이즈 디스플레이의 달 위치는 2시 방향에 장식한 푸시 버튼으로 조정할 수 있다, 4천7백30만원, 모두 IWC, 문의 02-3440-5876



Omega

(왼쪽부터) 베젤에 새긴 로마숫자와 케이스에 장식한 클러, 모노 링크 브레슬링이 돋보이는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쿼츠-엑스럼 마스터 크로노미터 33mm, 태양광 배터리를 적용한 블루 다이얼 6시 방향에 날짜창을 갖추었으며, 시곗바늘과 오메가 로고, 인덱스 모두 18K 세드나 골드로 제작했다, 투명 글라스 백으로 칼리버 8801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3천만원대, 항자성을 입증받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700을 탑재한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쿼츠-엑스럼 마스터 크로노미터 29mm, 지름 20mm 케이스의 여성용으로, 세드나 골드와 스틸 소재가 조화를 이룬다, 9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511-5797

Van Cleef & Arpels

(위부터 시계 방향) 폴라리스 메탈에 칼리그래피로 메종의 창립자 에스텔 아펠과 알프레드 반클리프 커플의 이름을 새긴 명드림 시그니처 워딩 밴드 2백만원대, 측면에 반클리프 아펠의 이름을 칼리그래피로 성세하게 새기고 밴드 중앙에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뉴욕 워딩 밴드 3백만원대, 0.57캐럿 센터컷 다이아몬드를 리본 형태로 감싸는 유려한 디자인의 쿠투르 슬리터어 링 1천5백만원대, 심플한 밴드를 따라 다이아몬드를 장식하고 밴드 중앙에 0.37캐럿 다이아몬드를 프롭 세팅한 로망스 슬리터어 링 7백만원대, 화전 아벤추린 다이얼로 태양과 달이 교차하며 시간을 알려주는 레디 디아블 데이 앤 나잇 타임피스 1억2천만원대, 지름 42mm 핑크 골드 케이스와 대비되는 화이트 레커 다이얼에 해-롬 패턴을 적용한 세련된 감성의 피에르 아펠 타임피스, 메뉴얼 와인딩 매케-업 무브먼트 830P로 구동하며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2천1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문의 00798-852-16123



Tiffany & Co.

(왼쪽부터) 티파니 뉴욕 본사 외벽에 설치된 청동 시계를 모티브로 삼은 티파니 이블리스 2-밴드, 24mm 스텔 케이스에 퀴즈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30m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패배 세팅한 다이얼 중앙과 인덱스, 화려한 배젤이 블랙 다이얼과 스트랩과 어우러져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긴다, 9백15만원, 클래식함에 다이아몬드를 절묘하게 세팅한 티파니 슬리스트 밴드 링 3백48만원, 브랜드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빗댄 디자인에 적용한 화이트 골드 티파니 트루 워딩 링 2백만원, 다이아몬드를 고정하는 프롭 부분에 T 모티브로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형성하여 정제되고, 구조적인 매력의 티파니 T 트루 링 가격미정,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Bvlgari

(위부터) 0.7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성세하게 패배 세팅한 플로럴 펜던트가 극강의 화려함을 뽐내는 피오레버 비크라스 2천7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패배 세팅한 부채를 모티브로, 4캐럿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감싸는 로즈 골드 다비스 드림 링 1천만원대, 각 0.57캐럿과 0.15캐럿 다이아몬드를 감싸는 8개의 다이아몬드 꽃잎이 매혹적인 피오레버 브레이슬릿 2천7백만원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육각형 패턴으로 뱀 비늘을 표현한 세르펜티 세투토리 스텔 브레이슬릿 워치, 로즈 골드 케이스 배경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배가했다, 3시 방향에 위치한 크라운에는 카본송 컷 루벨라이트를 장식해 핑크빛 포인트를 주었다, 1천2백만원대, 생령, 무한 창조, 부활 등의 의미를 지닌 기호제로 41mm 팔각 형태의 케이스가 돋보이는 유로 로마 워치, 치분한 감성의 그레이 다이얼에 로즈 골드 소재를 적용한 렌즈와 인덱스로 세련된 감성을 더했다, 9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문의 02-2056-0170 에디터 장라윤, 이주이 어시스턴트 조소희

the time of Our Life

영원한 시간을 약속할 수 있는 가치 높은 페어 위치를 찾고 있다면, 세련된 품격, 정교한 기능, 감도 높은 디자인을 겸비한 오메가의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이 완벽한 선택이다. 현대적인 감각을 입고 진화한 다채로운 버전의 컨스텔레이션 위치는 예비 신랑과 신부의 감각적인 취향을 두루 만족시킬 것이다.

Constellation for Him

1952년 출시한 이래 68년간 오메가의 탁월한 정확성과 타 임리스한 우아함을 상징하는 아이코닉 위치로 사랑받아온 컨스텔레이션. 반짝이는 별에서 영감을 얻은 아름다운 이름의 이 시계는 시대에 걸쳐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을 재정립하며 기계적, 미학적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2020년, 오메가에서 컨스텔레이션의 5세대 모델인 남성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총 26가지에 이르는 지름 39mm 제품으로 구성된 컬렉션은 반달 모양으로 깎은 케이스 상단과 하단 패시, 4개의 클러(claw), 로마숫자 인덱스, 상급 골드 스타 장식 등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를 충실히 재현한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며, 더욱 완벽한 디테일을 가미해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모서리를 폴리싱 및 베벨 가공한 케이스, 클러, 브레이슬릿은 시계에 모던한 감성을 더하고, 간결한 모양으로 탈바꿈한 미드 바 링크, 편리한 조정 장치를 장착한 메탈 브레이슬릿과 다채로운 컬러 레터 스트랩은 젊은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원뿔형으로 다듬은 크라운, 케이스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층 슬림하게 설계한 클러, 뉴욕 프리덤 타워의 삼각 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핸즈, 아워 마



5



7

1 새로운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위치를 착용한 오메가 영웅에서, 배우 에디 레드메인. 2 세드나 골드™ 케이스, 브레이슬릿에 선-브러시드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다이얼을 장식한 핸즈, 오메가 로고, 컨스텔레이션 스타와 인덱스 모두 세드나 골드™ 소재로, 뛰어난 품격을 느낄 수 있다. 3 유니크한 텍스처의 로우-그레이 다이얼이 갖는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배경에 새긴 로마숫자 인덱스를 포함해 다이얼 전체에 블랙 컬러 포인트를 가미, 시크한 무드를 강조했다. 4 화이트 실버 다이얼을 장착한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측면을 4개의 클러로 장식한 18K 옐로 골드 케이스와 올리브 레터 스트랩의 조화가 감각적이다. 5 규정에 강한 돌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타임피스 중심에 자리한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55시간의 파워 리저브, 50m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1만5,000가우스 이상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탁월한 항자성을 입증받았다. 6 스틸 & 세드나 골드™ 소재의 남성용 컨스텔레이션 위치. 다이얼 6시 방향에 카타인 날개형이 위치하며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품격을 더했다. 7, 9 삼크 앙크 차린 블루 다이얼, 블루 레터 스트랩을 매치한 세드나 골드™ 소재의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8 유백색 다이얼, 세드나 골드™ 케이스로 심플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한 컨스텔레이션 위치.

Constellation for Her

1982년 출시한 컨스텔레이션 맨해튼은 컬렉션 최초로 4개의 아이코닉 클러를 선보이고, 하프-문 패시와 원형 다이얼, 베젤 인덱스가 있는 배럴 형태의 케이스를 사용한 모델로, 현재의 컨스텔레이션 컬렉션 역시 이에 기반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8년, 오메가는 아이코닉 컬렉션을 기념하며 동시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컨스텔레이션을 내놓았다. 오메가 칼리버 4061로 구동하는 케이스 지름 25mm, 28mm 모델과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700/8701을 탑재한 케이스 지름 29mm 모델로 전

개, 여성의 손목에 알맞은 슬림한 실루엣으로 고안했다. 한편 케이스 지름 29mm 사이즈 시계의 케이스 백에는 동형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케이스 지름 25mm와 28mm 모델에는 '별빛 아래 천문대(Observatory Under the Stars)' 메달리온을 더해 더욱 특별한데, 이는 1933년 오메가가 영국 큐-테딩턴(Kew-Teddington) 천문대에서 정확성을 인정받아 세계 기록을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고안한 것. 제네바 천문대를 연상시키는 둥근 지붕은 컨스텔레이션의 정확성을 상징하며, 8개의 별은 1933년과 1936년에 세운 2개의 세계기록을 비롯해 1952년과 1954년 사이 성공적으로 통과한 6개의 콘테스트를 의미한다. 또 이 8개의 별은 오늘날 오메가가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인증받기 위해 거치는 여덟 가지 기계적 테스트를 상징하기도. 이처럼 수십 년 동안 아름다움과 정교함으로 세대를 거쳐 수많은 아예 사랑받아온 컨스텔레이션은 인생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소중한 의미를 간직한 시계로, 또는 일상을 함께할 손목 위 동반자라도 부족함이 없다.

문의 02-511-5797 에디터 이혜미

10 여성용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의 영웅이 되기를 키드민. 11 케이스 위아래를 장식한 반달 모양 패시, 좌·우측에 위치한 4개의 클러, 미드 바 링크를 결합한 오-캠 브레이슬릿 등 아이코닉한 요소를 간직한 여성용 컨스텔레이션 위치. 세드나 골드™ 케이스의 지름은 28mm로, 밀 자계 다이얼과 배경에 영혼한 다이아몬드를 새겼다. 12 스틸과 세드나 골드™ 소재를 결합한 컨스텔레이션 퀴츠 25mm. 발하늘처럼 반짝이는 블루 어벤추러 글라스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베젤, 다이아몬드 이워 마커가 어우러져 눈부시게 아름답다.



11



8



10



12

커의 변화 역시 눈여겨볼 부분. 한편 무브먼트의 우수한 성능 또한 컨스텔레이션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정확성, 성능 및 항자성 부문에서 스위스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 기관(COSC)의 엄격한 크로노미터 표준 테스트를 통과한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8801을 장착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함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8K 옐로 골드, 세드나 골드™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골드, 실버, 브라운, 블루 등 여러 가지 컬러와 소재의 다이얼을 매치해 다양한 취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6



4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슬리 시슬리**를 진정과 인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난 에프터 셰이브 제품으로 탁월한 남성용 스킨케어 50ml 26만원, 문의 080-549-0216 **에르메스 테르 데르메스 에프터 셰이브 로션** 샴푸, 베타베르, 자몽, 인스랑 등의 노트를 조합해 자연과 땅의 상쾌한 향을 즐길 수 있는 로션 50ml 6만6천원, 문의 02-310-5174 **에드워드인 by 트루맛앤힐 레이저** 그림자를 고려한 상세한 설계로 면도날이 피부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적당한 압력을 가해 자극을 최소화하는 핸드 메이드 면도기 가격 미정, 문의 02-511-1805 **틀 포드 뷰티 립 인스톨리메이터** 입술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촉촉한 립을 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슈거 베이스의 스크립 제품 9g 5만원대, 문의 02-3440-2760 **크리드 로얄 오우드** 자연스롭게 태어난 듯 건강한 피부 톤으로 연출해주는 브론저 젤, 긴황과 해바라기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보호하며, 글리콜과 세안만으로 간편하게 씻어낼 수 있다, 60ml 5만5천원, 문의 02-6971-3204 **에디션 드 퍼플 프라테릭 말 베타메 엑스트라오디네르** **셰이빙 크림** 베타베르, 샌들우드, 핑크 페퍼, 베르가모트 등을 조합한 신뜻한 향을 더해 기분 좋은 면도를 즐길 수 있는 셰이빙 크림 100ml 11만원대, 문의 02-3479-6258 **크리드 로얄 오우드** 대리석, 금, 가죽 등으로 장식한 호화로운 베르사만 궁전에서 영감을 얻은 우아하고 목작한 느낌의 향수,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침향나무에서 추출한 화성성 높은 향료를 다뤘다, 100ml 44만3천원, 문의 02-3449-5312 **샤넬 보이 드 샤넬 르 스틸르 수르셀 #206** **디 브라운** 자연스러운 컬러와 8시간 이상의 지속력이 특징인 남성용 아이브로 펜슬, 약간의 터치만으로 또렷하면서 깔끔한 인상을 연출할 수 있다, 0.27g 5만9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아메이**

grooming It List

에비 신랑의 완벽한 룩을 완성하는 데 일조할 감각적인 그루밍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어사태 조소희

turn on the Light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한 화이트닝 솔루션, 휘트 블랑 르 공쌍트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피부의 빛을 밝힐 시간

칙칙한 안색과 균열하지 않은 피부 톤, 거뭇거뭇한 다크 스팟은 티 없이 깨끗한 피부를 평생 간직하고 싶은 여성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잡티만 얼어져도 피부가 얼마나 환해 보이는지! 시슬리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신제품 휘트 블랑 르 공쌍트레를 출시했다. 미백 관리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잡티 제거와 광채 부여를 해결하는 만능 브라이팅닝 집중 세럼으로, 20여년간 미백 관련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시슬리 연구소의 지식과 노하우를 집약한 제품이다. 아침저녁으로 사용하면 칙칙한 톤과 고르지 않은 피부결 완화에 집중 작용한다.

완벽한 미백 구현

멜라닌 형성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집중한 시슬리는 신체에서 유독 다른 부위보다 맑고 하얀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는 DKK1이란 단백질 성분 덕분인데, 손바닥의 섬유아세포에서 생성된 자연 성분이 멜라닌 생성 억제자로서 피부에 브라이팅닝 효과를 선사한다. DKK1 연구 중 새롭게 발견한 미로블랑 추출물이 피부에 스며들면, 생체 모방 액션을 취해 DKK1의 활성화를 도와주고, 니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줄여준다. 그뿐 아니라 콩 펩타이드 추출물, 헤셀레조르시놀, 백리향 추출물, 비타민 B3 등 네 가지 활성 성분으로 구성된 콤플렉스가 멜라닌 생성 단계에 활동해 피부 표피에 있는 다크 스팟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멜라닌 형성 단계부터 피부 표면에 멜라닌이 방출되는 4단계에 체계적으로 관여해 스팟을 관리한다. 미세 먼지, 자외선과 같은 외부 요인과 생활 스트레스 역시 피부 산화와 멜라닌 세포의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사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산화 방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비사보롤 성분이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각종 외부 요인으로부터 철벽 수비한다. 두 달간 꾸준히 휘트 블랑 르 공쌍트레 제품을 사용한 21~58세 아시아 여성 23명은 15일 후 안색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2개월 후에는 피부 톤이 더욱 균열해지는 것을 실감했다고. 휘트 블랑 르 공쌍트레는 촉촉한 젤 에멀션 타입으로 얼굴에 바르면 상쾌하고 부드럽게 스며들며 건조함 없이 신뜻하게 마무리된다. 아침저녁 꾸준히 바르면 맑고 깨끗한 피부와 고급스러운 빛을 얻을 수 있을 것. 20ml 43만원. 문의 070-4040-5570 **에디터 아유이**



● sponsored by SISLEY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시슬리가 함께하는 쿠폰 이벤트

시슬리 휘트 블랑 르 공쌍트레의 브라이팅닝 효과가 궁금하다면, 그 간가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샘플링 기간 동안 아래 매장을 방문하시면 휘트 블랑 르 공쌍트레 2ml 샘플을 증정합니다.

◆ **증정품** 휘트 블랑 르 공쌍트레 2ml ◆ **기간** 2020년 2월 7일(금)~14일(금) ◆ **증정 매장** 현대백화점 본점·무역센터점,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갤러리아 명품관 ◆ **문의** 070-4040-5570

* 1인 1매 한정 사용, 증정품은 한정수량으로 조기 매 품절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디테일의 심플한 롱 드레스
가격 미정 뉴 화이트 by 소유 브라이덜.
클래시한 크리스탈 이어링
69만9천원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Born to be Loved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는 그녀만의 빛나는 순간을 기록한다.
심플하고 격조 있는 스타일로 더욱 축복받는 웨딩 마치.
photographed by shin sun hye

스웨터 네브라인 드레스 89만9천원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시스루 클리어 가죽 미장 더 김 라운지, 화이트 블루 스타를 세팅한 이어링 108,000원, 네브라인 17만9,000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스튜디오 장서원 촬영한 드레스 8백만원에 열려있는 시용 by 세용 웨딩. 블랙 오픈트월 힐 1백만원, 자켓만들 용사, 모던한 감각을 더한 후프 드레스 279만원, 나중입 모티브의 블루 스킨의 브레이즐렛 329만원 모두 시용복스기.



레트로 무드의 시스루 드레스 5백만원대 다바인 아틀리에 by 마이도리스 웨딩. 얇은 재질을 레이어드한 멋스러운 헤어피스 가격 미정 더 킴 리운지, 레이어드해서 연출한 구조적인 디자인의 자디 큐브링 47만원 골든듀.

고전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재킷과 튜브 탑 벨라인 드레스
1천5백만원대 **이론 라인 화이트**
by 헤리티지 뉴욕, 골드 플라워
헤어핀 가격 미정 **더 퀸 라운지**.
평생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허트 링 17만9천원 **스외로브스키**.



페미닌한 디자인의
메이어드 드레스 7백만원대
미크 앙그렘 by 매종레브.
KU 인피니트 1캐럿 다이아몬드
이어링 가격 미정 **골든듀**.

into the Waves

스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라프레리가 끊임 없이 탐구해온 '빛'이 지난해 12월, 마이애미 비치에서 색다른 존재감으로 눈길을 끌었다. 마이애미 해변에 설치된 빛의 기둥 그리고 빛의 파도(Wave), 과학을 예술로 표현하는 라프레리의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과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라프레리의 빛, 마이애미에서 예술로 승화되다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변함없는 아름다움의 비밀을 탐구하며, 가장 진보된 테크놀로지과 탁월한 포뮬러, 우아한 패키징 등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뷰티 브랜드, 라프레리. '빛의 과학을 이용한 탁월하고 일관성 있는 라프레리의 연구와 노력은 스킨케어를 넘어 예술 작품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빛을 사로잡는 것은 시간을 사로잡는 것이다.' 이는 스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라프레리의 '일루미네이팅 화이트 캐비아 콜렉션의 기반이 되는 철학이다. 라프레리는 저명한 예술가 파블로 발부에나(Pablo Valbuena)에게 빛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빛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줄 것을 의뢰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현재 남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블로 발부에나는 공간(space), 시간(time), 그리고 지각(perception)에 중점을 두는 설치미술 아티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들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곳곳의 공공 & 사설 기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많은 비엔날레와 갤러리 전시, 그리고 대형 공공 이벤트를 통해 선보였다. 빛을 주제로 깊은 몰입을 이끌어낸 이번 설치미술 작품은 2019 아트 바젤 마이애미 에디션으로, 지난해 12월 5~6일 마이애미 해변에서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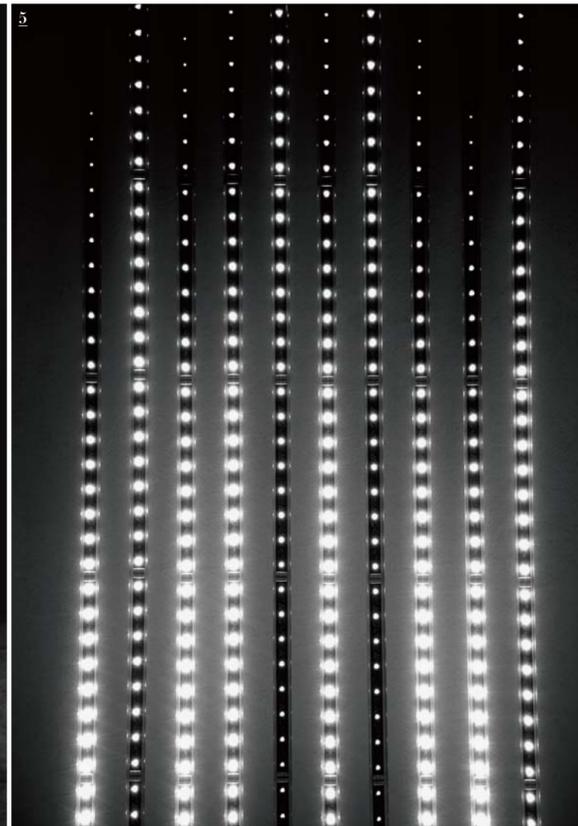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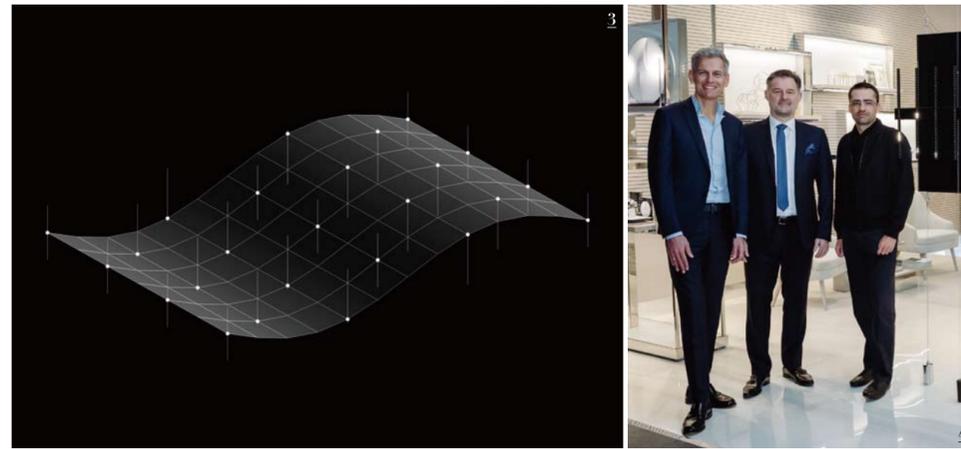
라프레리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그레그 프로드롬미데스(Greg Prodromides)는 "우리는 라프레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라프레리와 협업하는 아티스트는 우리 이야기를 그들의 특별한 시각과 예술적인 언어로 승화시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이번 에디션을 위해 평범함에서 조금 벗어난, 특별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대중이 경험할 수 있는 아트 바젤 전시장 밖에서 라프레리가 의뢰한 예술 작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프레리는 예술을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인 파블로도 공감하고 있죠"라고 말했다.

마이애미 해변에서 '빛의 힘'을 '경험'하다

파블로 발부에나의 예술적 탐험의 주요 요소는 실제와 가상의 오버랩, 그리고 실제와 인지된 것 사이 경계의 허물어짐, 공간과 시간의 관련성, 작품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중요한 매개로서 '빛과 소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들이 구현된 창작물은 물리적 도구가 아닌 인지적 도구를 통해 공간을 구성하고 변형하며, 일시적으로 특정 공간에만 고유하게 존재한다. 라프레리와 협업하기 위해 파블로 발부에나는 자신의 시그니처 작품인 'Array' 시리즈에 영감을 받은 'Wave'라는 빛 설치 작품을 디자인했다. 이번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라프레리의 브랜드 가치인 정교함, 미학, 그리고 혁신을 완벽히 표현한 콘셉트인 빛의 형태에 몰입하도록 했다. 빛이 파도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이 매력적인 예술 작품은 바다가 펼쳐진 풍경에 빛을 드리우며 마이애미 비치에 경의를 표했다.

발부에나는 "Wave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쳐지는 '조각적인 불륨'을 묘사해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움직임에 사로잡힌 빛의 형태죠. 빛과 자연의 소리처럼 일시적이고 만질 수 없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또 이 작품은 규모의 경험을 창조합니다. 관찰자가 내부, 외부 또는 작품의 경계 등 위치하는 곳에 따라 대상과 환경 사이의 움직임이 변하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빛의 변형은 작품에 내재된 근본적인 요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이번 프로젝트를 라프레리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빛의 형상을 넓게 트인 마이애미 해변으로 가져올 수 있었기에 가상과 현실을 동일한 요소에 겹쳐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과 함께 라프레리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계속할 것이다. 2020년 2월, 신제품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발부에나의 빛나는 작품은 라프레리만의 정교한 미학을 예술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도 빛의 힘에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빛, 마이애미 해변, 그리고 라프레리. 자연, 과학,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완벽한 풍경이었다.

1 2019년 12월 마이애미 해변에 설치된,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 파블로 발부에나의 빛을 테마로 한 작품 'Wave'. 시시각각 움직이는 빛의 기둥 사이로 들어온 또 다른 빛의 세상이 펼쳐진다. 2 2019 마이애미 아트 바젤에 참여한 라프레리의 부스. 빛의 예술 작품과 다양한 오브제기 라프레리의 빛의 과학과 철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3, 5 빛을 콘셉트로 한 다양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파블로 발부에나의 작품들. 첨단 디지털 기술이 그가 추구하는 빛의 형상을 완성해준다. 4 마이애미 아트 바젤 부스에서 함께한 라프레리의 경영진과 작가. (왼쪽부터)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 그레그 프로드롬미데스(Greg Prodromides), 라프레리 프라제던티비자 CEO 패트릭 라스퀴넬(Patrick Rasquinet), 파블로 발부에나.



interview with_ Pablo Valbuena

Q 라프레리와 함께한 작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라프레리는 그들의 타이인 빛의 형태와 연결된 설치 작품을 의뢰하기 위해 제게 연락했습니다. 이 의뢰의 주요 취지는 공공장소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고, 저는 공공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작품을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관람객에게 상업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프로젝트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품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환경을 제공할지 궁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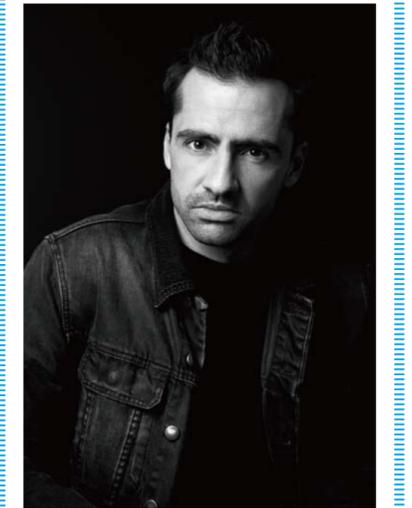
Q 마이애미 해변에서 선보인, 라프레리를 위한 당신의 설치미술 작품 'Wave'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Wave는 특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설치물입니다. 이 시리즈는 시간에 따른 형태의 변형을 탐구합니다. 이 작품들은 움직임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숨기는, 일련의 빛의 이동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변화의 순간, 즉 물체 자체의 물리적 변화보다는 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경험을 입증합니다. Wave는 다양한 빛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 빛은 질적으로 규모가 더 큰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 개별적인 요소로 합쳐집니다.

Q 이 설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사용했나요? 이 설치물의 기초가 되는 재료는 빛과 시간이라는 환경입니다. 해변은 작품의 뼈대가 되고, 저녁 내내 변화하는 빛과 바다와 모래의 모습이 무한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보는 사람들을 시시각각 다른 환경으로 이끌죠. 순환과 변화를 만드는 주제인 동시에 한편으로 객관적으로 즐기는 전자적 사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Q 대부분의 설치미술 주요 매체로 빛을 사용하는데, 숨은 이유가 있나요? 제 작품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특히 빛과 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경표이기 때문입니다.

Q 설치 작품에 어느 정도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나요? 가상의 영역에서 작업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변형하기 쉽고 빠르며, 에너지가 더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 특정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 수준이 낮아집니다. 또 물질을 변환하는 것보다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기도 합니다.

Q 파도의 모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왜 파도를 담은 설치 작품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제 'Array' 시리즈에서는 기하학적 구조를 지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움직임을 이용했습니다. 각 작품의 변형은 전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이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가 시간적, 문화적으로 식별하도록 훈련받은 수학적 함수를 선택합니다. 자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함수 중 하나는 파도입니다. 우리는 바람, 지진, 소리와 빛의 전달, 그리고 바다에서 유형이 다양한 파도의 함수를 찾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바다의 파도에 적용되는 수학 함수의 맥락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파동 입자가 원형 궤도로 움직이게 하는 사이클로이드 함수의 한 유형으로, 파도 꼭대기에 있는 물이 파도 방향으로 움직이고, 파도의 가장 낮은 지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the shape of Light

빛으로 완성되는 완벽한 스킨케어.
빛을 향한 라프레리의 끊임없는 연구는 피부 과학을 더욱 진화시켜
아름다움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오는 2월 17일, 놀라운 기술력으로 선보일 새로운 아이 케어 솔루션,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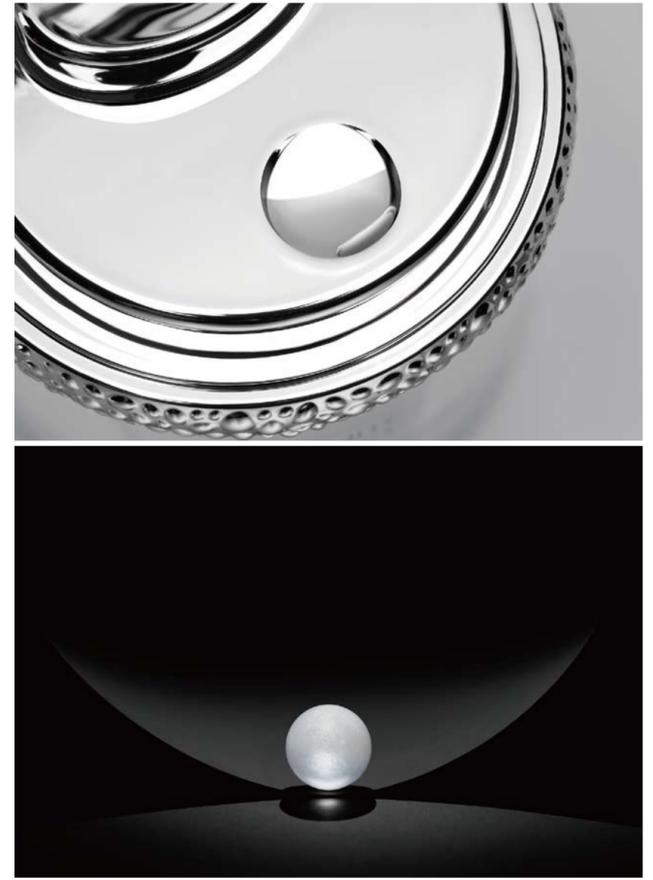
“건축이란 빛 아래 조직된 형태들의 현명하고 정화하며 장엄한 균형이다
(Architecture is the wise, precise and magnificent balance of forms assembled in the light).”
_by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건축가)

눈 주변을 완벽하게 만드는 라프레리만의 빛의 과학

라프레리는 빛과 형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또 한 번 빛의 과학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형태와 평면에 따라 빛이 작용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눈썹의 우아한 곡선, 눈꺼풀의 윤곽, 숨겨진 속눈썹 라인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눈의 구조를 연구한 것. 빛과 형태에 대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언급에서 영감을 얻은 라프레리의 과학자들은 눈가를 3차원적 시점에서 탐구하며 빛이 형태를 드러내는 방법과 형태가 빛을 드러내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곡선과 기울기, 대비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눈의 독특한 구조에 광채를 선사해줄 풍부하면서도 섬세한 포물러의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가 탄생했다. 2019년 라프레리는 이미 피부 광채를 색소와 빛 반사의 함수로 표현한 빛의 방정식을 선보였다. 그러나 눈가의 경우 빛의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소를 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눈의 3차원적 구조 때문에 눈가의 빛이 색소와 빛 반사뿐만 아니라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색소와 빛 반사는 피부 상태에 작용해 빛의 질과 강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형태는 반사된 빛의 강도에 따른 공간 분포를 조정해 그림자와 빛의 대비 패턴을 만든다.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는 이 모든 요소, 즉 색소(colour), 빛 반사(reflection), 형태(shape) 등을 다루어 보다 완벽한 아이 케어에 가까워지도록 설계되었다.

독자적인 성분과 과학으로 완성한 퍼펙트 아이 케어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는 라프레리의 독자적인 일루미네이팅 분자인 루미도스(Lumidose)로 농축되어 있다. 이 신제품은 외부 유해 환경으로 인한 회색 피부 톤, 노화로 인한 황색 피부 톤, 노화 및 햇볕 노출로 인한 에이징 스폿,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홍조, 누적된 피로로 인한 눈 밑 다크서클 등 피부 본연의 빛을 무디게 하는 색소 형성을 집중적으로 방지해 광채가 되살아나도록 돕는다. 골든 캐비아 추출물을 함유한 럭셔리한 포물러는 피부 밀도를 높여 눈가의 부기와 주름으로 생기는 굴곡을 감소시키고 피부결을 정돈해 피부의 빛 반사 능력을 최적화한다. 원통 모양의 진주빛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 용기의 깔끔한 라인은 컬렉션의 이름을 딴 캐비아 비드를 연상시키는 찬란한 조각의 링으로 장식되어 있다. 고풍택 실버 캡이 보석 상자처럼 열리면 빛을 반사하는 통합형 거울이 드러난다. 매끈한 버튼을 누르면 루미도스의 일루미네이팅 속성을 보존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에어리스 펌프가 활성화되어 탁월한 광채를 위한 완벽한 양의 화이트 크림을 내보낸다. 내장된 회전하는 구 모양의 세라믹 펄 애플리케이션으로 롤링하면 눈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고, 크림의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눈가에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 눈 밑 어두운 부분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www.la-prairie.co.kr



Q & A로 자세히 알아보는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

다니엘 스탕글(Daniel Stangl) 박사는 라프레리의 이노베이션 디렉터로, 최첨단 피부 생물학과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과 혁신적인 상품 콘셉트를 개발하는 라프레리 이노베이션 팀의 수장. 1993년 라프레리와 함께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업계, 학계의 외부 파트너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유효 성분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라프레리의 가장 혁신적이고 귀중한 인티에이징 전략을 개발하는 그에게 이 획기적인 신제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Q1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는 어떤 제품인가요?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는 넓은 면적의 눈가 윤곽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 높은 일루미네이팅 크림입니다. 골든 캐비아 추출물에서 찾아낸 강력한 일루미네이팅 성분인 루미도스는 라프레리의 독자적 요소로, 피부에 발생하는 색소를 개선하고 탄력을 회복시켜 눈가에 놀라운 아름다움을 선사해줍니다. 눈가 피부는 눈 밑 자항이나 다크서클처럼 특정한 문제를 겪을 뿐 아니라, 얼굴의 다른 부위 피부보다 얇고 연약합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눈 부위의 광채가 확연히 감소하므로, 눈가 광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 새로운 제품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으며,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형태와 빛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빛은 형태를 드러내고 형태는 빛의 형상을 조절해줍니다. 우리는 빛의 원리에 따라 색과 반사, 두 가지 요소로 정의했던 빛의 방정식을 눈 윤곽에도 적용하기 위해 형태라는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형태는 그림자와 빛 사이의 대비되는 패턴을 만들고, 그림자 진 곳은 밝은 영역보다 빛을 적게 반사합니다. 따라서 그림자를 줄이면 피부 광채가 높아집니다. 그림자의 패턴과 빛은 눈 윤곽의 형태를 최적화하고 어두운 곳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기를 줄이고 피인 곳을 채우며 밀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이루낼 수 있습니다.

Q3 골든 캐비아 추출물과 루미도스는 어떻게 함께 작용해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나요?
빛의 강한 반사와 피부에 흡수되는 빛의 양을 줄임으로써 광채가 최적화됩니다. 골든 캐비아 추출물에는 콜라겐과 플라센트 형태를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루미도스는 피부의 갈색 멜라닌을 감소시키고, 빛을 흡수하는 색소의 양을 줄여 더 많은 빛이 피부에 반사되도록 해주며, 골든 캐비아 추출물과 루미도스는 색과 반사라는 빛의 방정식, 두 가지 측면에서 상호작용해 빛나는 피부를 만듭니다.

Q4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의 임상 연구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임상 연구에서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가 눈가 피부의 광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인 색, 반사 및 형태에 적용되어 탁월한 놀라운 광채를 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회색, 갈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의 다섯 가지 색소 문제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거칠어진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주름과 눈 밑 부기를 완화해 탄력을 개선해줍니다. 연구 패널들은 눈 윤곽이 매우 밝아졌고, 빛 반사가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눈의 윤곽 구조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눈가의 광채가 개선되어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Q5 빛의 과학은 화이트 캐비아 컬렉션에서 어떻게 표현되며, 이 분야가 향후 제품 출시에 어떤 영감을 줄까요?
라프레리는 피부 광채를 결정하는 데 색, 반사 및 형태가 주요 요인임을 발견했습니다. 피부의 색

소를 줄이고 빛 반사를 증가시키며 형태를 최적화함으로써 광채가 완성됩니다. 빛 반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첫째는 피부의 선과 주름을 줄여 전체적인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 시각적인 대비를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피부 내부에서 빛을 반사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콜라겐 네트워크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형태를 최적화하면 눈가의 그림자와 빛의 밸런스가 향상되어 피부 광채에 도움을 주는데, 예를 들면 눈 밑 부기를 줄이는 것 등으로 형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빛의 방정식은 우리가 피부와 빛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해주며, 색소를 감소시키고 빛 반사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향후에 만들어낼 제품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Q6 화이트 캐비아를 이용한 스킨케어 단계에서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깨끗이 세안한 뒤 더 밝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첫 단계로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클리니피잉 로션을 발라줍니다. 다음으로 얼굴과 목, 쇄골에도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션 펄 인뮤전을 바릅니다. 그리고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를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를 1회 정도 분해 눈가를 피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발라주어 스킨케어를 마무리합니다.

Q7 포물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로 세라믹 펄을 소개하셨는데, 이것의 혁신과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실까요?
세라믹 펄은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를 보완해줍니다. 시원한 촉감을 선사하는 세라믹 펄은 롤링을 통해 림프액 배출을 증가시키고 미세 순환을 도와주는 부드러운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독소를 제거해 눈 밑 자항과 다크서클을 확연하게 완화해줍니다.



Snowy Bliss

위스키의 세계를 잘 몰라도 우아하기
그지없는 땀을 보던 절로 빠져들 만큼
로얄 살루트는 특유의 오라(aura)를 풍긴다고들 한다. 반세기도 훨씬 더
전인 1953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에 헌정된 탄생 스토리를 지닌
위스키다운 존재감이다. 오랜 위상을 지켜온 배경에는 '블렌딩의 예술'이라는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흥미로운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 온 균형의 미학이
버티고 있다. 이번에는 마치 '눈의 여왕'을 위한 선물처럼 새하얀 자태가
돋보이는 '스노우 폴로 에디션'이 참신한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그 매력적인
모습을 전격적으로 선보인 무대는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펼쳐진 스노우
폴로 대회. 눈부신 설경 속에 역동성이 넘쳐흐르는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다기도 햇살을 받은 온통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겨울 숲으로 둘러싸인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Aspen). 겨울의 할리우드라는 별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유명 인사와 연예자가 즐겨 찾는 이 아름다운 휴양지는 은광으로 전성기를 누렸다가 1930년대 접어들어 패망 위기에 처했던 아델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실려 스포츠와 예술의 기운이 넘실대는 오늘날의 인기 명소 겨울 왕국으로 거듭났다. 겨울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꼽히는 품의 휴양지인 아스펜에서는 보기 드문 볼거리를 선사하는 연례행사인 열라네데, 바로 북미 지역의 유일한 스노우 폴로 대회인 '세인트 레지스 월드 스노우 폴로 챔피언십(Saint Regis World Snow Polo Championship)'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왕의 스포츠로 불리는 폴로 경기를 새하얀 눈밭에서 역동적으로 즐기는 럭셔리 스포츠인 스노우 폴로는 1985년 스위스 생모리츠의 열라네데 호수에서 처음 치러졌고, 아스펜에서 열리는 세인트 레지스 챔피언십은 권위 있는 세계 토너먼트 중 하나이며, '왕실 위스키'로 불리는 로얄 살루트가 공식 후원하는 대회로, 폴로 팬은 물론 여행객의 각자적인 스타일로 단정한 패션 피플이 몰려들어 관광을 즐긴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결정체, 스노우 폴로 에디션
지난 12월 중순에 열린 2019 스노우 폴로 챔피언십에서는 특히 '눈의 왕국과 잘 어울리는 화이트' 감성이 곳곳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배경에는 이 대회를 위한 VIP 관중석이 마련된 새하얀 막사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역할을 한 '로얄 살루트 21년 스노우 폴로 에디션'이 있었다. 실전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스노우 폴로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한정판 제품으로, '폴로 에디션' 시리즈의 세 번째 주자, 비텐더들이 각테일 쇼룸을 선보이고 참석자들이 긴박한 향연을 벌인 막에는 눈 덮인 산을 연상케 하는 순백의 플라곤이 또 다른 의미에서 행사의 주인공 노릇을 톡톡히 해낸 이 제품은 46.5도의 100% 그레인 위스키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다. "스노우 폴로의 탄생지인 스위스 생모리츠의 위도에서 영감을 받은 도수예요. 도수가 높지만 큰 얼음 조각을 넣고 희석해 마시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균형이 잘 잡힌 세련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마스터 블렌더이자 로얄 살루트의 품질을 책임지는 샌디 하슬롭(Sandy Hyslop)은 극한의 부드러움을 거듭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시원한 얼음 조각을 띄운 채 들어가는 스노우 폴로는 기존의 로얄 살루트를 상징하는 '짙은 블루' 보틀에 담긴 풍부한 향과 강렬한 풍미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을 품고 있다. 샌디 하슬롭의 설명에 따르면 스노우 폴로 에디션 같은 한정판 에디션을 통해 로얄 살루트가 가진 풍부한 다양성의 자산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싶었고, 영국을 대표하는 폴로 선수 출신으로 로얄 살루트의 폴로 앤배서더로 활약하며 전 세계를 누비는 맬컴 보워크(Malcolm Bowrick)는 스노우 폴로 에디션을 가장 대담한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위스키는 대개 자연산인 데 비해 최소 21년 숙성된 원액만 다루는 로얄 살루트가 고연산 그레인 위스키를 개발한 것 자체가 꽤 대담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스노우 폴로 에디션처럼 경기 자체도 사뭇 다른 매력을 품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기장 면적도 전에서 진행되는 폴로에 비해 훨씬 작고, 선수 구성도 4대 4가 아닌 3대 3인데, 무엇보다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히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한편에 멀리 치고 나가기도 힘들고, 볼을 컨트롤하기도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맬컴 보워크는 아스펜 같은 곳에서 하는 스노우 폴로 행사의 진정한 즐거움을 수려한 경치와 그 고장의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는 시공스러운 각종 파티가 빛나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말했다. 호텔 건물들마저도 다채로운 호수처럼 자연미를 끌어내는 한자한 이 마을에서 공간에 맘을 흘리며 폴로 레슨을 받은 뒤 위스키를 즐기며 설경을 비보노리던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오감으로 체감하는 미학, '블렌딩의 예술'
그리고 이 총체적인 경험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직통케 하는 '공각각(synesthesia)'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된다. 바로 로얄 살루트의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는 스타 조향사 바나



1 지난 12월 중순 미국 콜로라도주의 아름다운 휴양지 아스펜(Aspen)에서 열린 국제적인 스노우 폴로 대회인 '세인트 레지스 월드 스노우 폴로 챔피언십(Saint Regis World Snow Polo Championship)' 현장. 왕실 스포츠로 불리는 폴로의 깊은 인연을 맺어온 로얄 살루트가 후원하는 대회다. 2, 4 한정판 폴로 에디션의 세 번째 시리즈인 '로얄 살루트 21년 스노우 폴로 에디션'. 설산을 연상케 하는 새하얀 바탕에 역동적인 폴로 선수의 모습을 양각한 순백의 플라곤이 돋보인다. 700ml 기준 33만원. 3 로얄 살루트 브랜드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폴로 에디션 30원형. 왼쪽부터 폴로 선수 출신의 로얄 살루트 폴로 앤배서더 맬컴 보워크(Malcolm Bowrick), 마스터 블렌더 샌디 하슬롭(Sandy Hyslop), 스타 조향사 로얄 살루트의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는 바나 페 피용(Barnabé Fillion). 5 오감의 미학을 오롯이 느끼고 체험하는 로얄 살루트의 아스펜 행사에 참가한 게스트들이 폴로의 기쁨을 배우는 폴로 클라브에 참여하고 있다.



2 배 피용(Barnabé Fillion)의 얘기다. 모델에 이어 포토그래퍼의 캐리어를 밟다가 우연한 기회로 조향사가 된 그는 '향'을 통해 먼저 만나는 정에서 공통분모가 많은 위스키와 향수의 미학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음과 텍스트 등을 동원해 오감을 전부 일깨우는 시음 세션을 진행하던 그는 자신의 첫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원래는 싱글 몰트를 마셨는데, 로얄 살루트를 접하고는 다른 레이블의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의 위스키에 다양한 레이어(layer)가 존재하는 걸 보고 놀랐지요." 그래서 그는 처음 지문을 요청받았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미 태생적으로 뛰어난 자신이 없기에 굳이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저 탐색해 나가면 되는 브랜딩이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그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브랜드가 고유의 정체성과 자신을 강조한 채 다양한 상황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스노우 폴로 에디션이 탄생한 것이죠." 다만, 이 실험은 자유로우면서도 아주 신중하게 이뤄진다. 샌디 하슬롭이 자신의 '사부'이자 전대 마스터 블렌더 잭 가우디에게 배운 소중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명성을 일구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하루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글 **고성연**(콜로라도 아스펜 현지 취재)

사진: 제임스 페리노라카



joyful Living

행복한 기억에서 출발한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2020 S/S
시즌 컬렉션. 살랑이는 해변가의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듯한 이번 컬렉션은 보는 이들을
로맨틱한 여정으로 이끈다.

"엄마의 백년로 위에 놓여 있던, 나와 내 남동생이 어렸을 때인 1980년대 이탈리아에서 보낸 여름휴가 사진에서 이번 컬렉션의 영감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강렬한 비류다 프린트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매우 가볍고 풍요로운 느낌이지만, 가슴적인 깊이와 건축적인 면까지 지니고 있는 컬렉션으로, 그 당시의 즐거움과 순수함을 담고 싶었습니다." 경쾌하고, 밝고, 즐거운 삶을 표현한 이번 살바토레 페라가모 2020 S/S 컬렉션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폴 앤드류의 행복한 유년 시절에서 비롯되었다. 청량한 컬러가 산뜻하게 조화를 이루고, 크리시피안 코트, 밀도 있는 니트, 라이트한 하이 웨일리의 가죽 등 스파이시한 색상, 과감한 프린트와 어우러져 경쾌하고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룩으로 가득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랑스럽게 변신한 바라 슈즈. 1979년 창립자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딸, 피암마 살바토레 페라가모(Fiamma Ferragamo)가 디자인한 하우스의 아이코닉 바라(Vara) 슈즈는 비바(Viva)로 재탄생했다. 세련된 스펙트럼의 단색은 더욱 시원한 느낌이고, 상징적인 디테일인 리본, 보우와 토 부들은 더욱 날렵하게 동글동글 귀엽고 러블리한 슈즈에서 예지되고 세련된 분위기로 변신했다. 이번 S/S 시즌 가장 주목받는 슈즈 중 하나로 떠오를 듯한 기본 좋은 예감.

최근 살바토레 페라가모 패밀리 지원으로 피렌체에서 재건축된 암마네티(Ammanneti)의 16세기 넬론 분수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프린트는 짙은 블랙스 오버, 스카프 모자, 편안한 롱 실크 데보레 드레스에 오버사이즈 플립 스커트는 물론, 남성 셔츠와 스웬웨어에도 적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과감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서머 스타일이 완성된 느낌이다. 베틀 스커트, 팍 묶은 앵클 트라우저, 백을 카팅한 테일러드 코트, 통 넓은 오버는 모두 로맨틱한 1980년대 이탈리아 스타일의 재해석으로, 살바토레 페라가모 고유의 럭셔리한 편안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무라노(Murano) 유리공예의 전통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컬러 표현 역시 이탈리아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 트랜치코트와 오버투는 등을 카팅해 모던함과 세시함을 강조했으며, 앞부분에 가죽을 매치한 트라우저와 뒷부분을 면으로 만든 셔츠 등은 강렬한 소재 대비의 이펙티브한 매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피렌체의 언덕에서 만든 라셀 니트 드레스와 비단 크레이프의 프린지 리본 스트라이프 톱, 손으로 탄푼 드레스도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완성도로 눈길을 끌었다.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전통적인 빅 하우스를 이끌고 있는 폴 앤드류의 행보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폴 앤드류 특유의 선하면서도 우아하고, 은은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이 컬렉션에 그대로 묻어내는 듯하다. "그리스랑지만 걸고 무겁지 않은 옷과 신발, 가방은 계절이 지난 이후에도 소중히 간직될 것입니다. 이 아이템들은 태양, 소금, 모래와 바다가 함께하는, 길고 내로운 하루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템들이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의 백년로 위에 있는 사진들처럼 아름다운 기억이 되어길 바랍니다." 추억, 여유로운, 손전구함, 소중함 등을 담고 있는 살바토레 페라가모 2020 S/S 컬렉션. 옷장 속에 또 하나의 추억이 고이 간직될 듯하다. #FerragamoSS20



1, 9, 10 지난 12월 10~12일 살바토레 페라가모 2020 S/S 컬렉션이 베네치아의 더 템플(The Temple)에서 진행됐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폴 앤드류가 직접 컬렉션을 소개해 프레스들의 호응을 받았다. 2 예지 있고 청량한 남자는 화이트 팬츠와 턱시도 재킷 세트. 3 일라노에서 열린 2020 S/S 컬렉션에서는 남성복도 함께 선보였다. 4 비바(Viva) 시리즈를 표현한 셔츠 니트. 5 크리시피안 소재, 편안한 디자인, 경쾌한 컬러가 인상적이다. 6 리메이브되어 화려하게 등장한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아이코닉 비바 슈즈. 비바(Viva). 7 온 S/S 시즌 유행을 예고하게 하는 원형 토트백. 8 화려한 프린트도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서머 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



BVLGARI

ROMA

00000000

FIORERE

BVLGARI.COM

Wedding STYLE CHOSUN | 11